❶지원 ❷소통 ❸경쟁 ❹준비…한국스포츠, 양궁만 같아라

굿바이 리우! 씨 유 인 도쿄!

글 싣는 순서

㊤양궁과 그 외 종목으로 나뉘다!
㊥아시아 라이벌 中·日을 배우자!
㊦리우, 평창의 반면교사로 삼자!



양궁대표팀은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의 쾌거를 이룩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양궁대표팀이 환한 미소 속에 손을 흔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뉴시스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17일간(6~22일·한국시간 기준)의 열전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 세계 206개국에서 28개 종목에 걸쳐 1만5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총 333명의 선수단(선수 204명·임원 129명)을 파견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금메달 9개로 마무리됐다. 대회 준비부터 성적까지 여러 부문에서 2% 아쉬웠다. 수많은 태극전사들과 낭자들이 피땀을 쏟아내며 최선을 다했지만, 대회 초반부터 유력한 금메달 후보들이 무너지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었다. 그나마 어렵게 얻은 메달들도 일부 특정 종목에 편중돼 한계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지구 남반구의 기후와 12시간의 시차 등 낯선 환경에 대한 대비도 미흡했다. 3회에 걸쳐 리우올림픽을 결산한다.

비리 없는 양궁협회, 오로지 실력만이 우선
현지 환경 구현 등 치밀한 금메달 프로젝트
비즈니스 클래스·휴게공간 마련 등 지원도
정의선 회장, 리우 찾아 선수들과 직접 소통

“어휴, 양궁과 같은 종목이 또 있나요?” “양궁 정도만 되면 못할 게 없죠.”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현장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전 종목이 양궁을 거론했고, 부러워했다. 그랬다. ▲적시적소의 지원 ▲명확하고 확실한 소통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철저한 준비 등은 대한민국 양궁의 엄청난 힘이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양궁은 리우올림픽을 평정했다. 남녀 개인·단체 전 종목(4개) 석권으로 세계 최강임을 재입증했다. 구본찬(현대제철)이 4년 전 런던올림픽 오진혁 이후 역대 2번째로 남자개인전 금메달리스트가 되며 2관왕에 올랐고, 장혜진(LH)이 여자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다. 양궁에서 나온 금메달 4개가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한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에 엄청난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음은 물론이다.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수시로 양궁장을 찾는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가 있을 때만 자리하는, 어쩌다 이뤄지는 반짝 관심이 아니다.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태릉선수촌에서 하루 500발 이상 활시위를 당기는 ‘주몽의 후예’들을 틈날 때마다 격려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챙기겠다는 의지였다.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대기업 수장의 입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표현이다. 그런데 정 회장은 그렇게 했다. 비행시간만 하루를 꼬박 넘기는 머나먼 리우를 직접 찾아와 태극궁사들을 응원했다.

이렇듯 누구보다 소탈한 자세로 다가서려는 정 회장을 양궁인들도 반겼다. 스스럼없이, 또 주저하지 않고 희망사항을 전했다. 양궁협회 김기찬 부회장도, 양궁대표팀 문형철 총감독 도 “다른 종목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안다. 주변을 신경 쓰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양궁인으로서 정말 행복하다”고 입을 모은다.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도 맑다. 양궁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거짓이 아니다. 엄청난 역경을 견뎌야 한다. 매년 대표팀 선발전이 반복되는데, 후보군(예비 엔트리) 분류부터 최종 선발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 어렵게 태극마크를 달아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피나는 연마를 거듭해야 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아시안게임 엔트리에서 탈락하고, 아시안게임 우승자가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는 것은 양궁에서 아주 흔한 일이다. 비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오직 실력뿐이다. 다른 종목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특정선수 밀어주기’, ‘특정팀 우승 몰아주기’ 따위의 추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전지훈련도 필요하다 싶으면 눈치를 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아마추어 종목이다.

리우올림픽 준비도 가장 철저했다. 9개월여 이어진 긴 프로젝트였다. 지난해 9월 리우에서 열린 테스트 이벤트(프레올림픽)와 올 1월 브라질 상파울루 전지훈련에서 보고 느낀 모든 부분을 반영해 태릉선수촌 양궁장을 올림픽과 최대한 비슷하게 꾸몄다. 수억원대 표적장비를 들여와 영점을 잡았고, 조명시설도 최대한 일치시켰다. 또 자동차 제작기술을 활용해 활의 손잡이까지 선수 개개인에 맞게 교정했다. 이마저 부족하다 싶어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토록 했고, 올림픽 선수촌과 경기장 왕복의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리우올림픽 선수단 총감독을 맡은 최종삼 태릉선수촌장은 “예나 지금이나 양궁이 가장 모범적이다. 단순히 지원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저렇게 (회장이) 정성을 쏟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이런 종목은 양궁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도 허술하고, 없는 살림살이에도 제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는 간부들이 있었던 몇몇 협회는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 대표팀 선발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실력 외의 변수가 끼어드는 것도 다반사였다. 협회 수장이 4년에 한 번뿐인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준비하는 대표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곳도 있고, 선수가 통역까지 겸해야 하는 종목도 있었다. 부상이 잦은 투기종목 상당수는 전담 트레이너 없이 리우에 왔다. 거친 경기에 인대가 늘어나고 팔이 빠져도 예약이 꽉 찬 올림픽 선수촌 의무실마저 이용할 수 없었던 선수들도 있다.

이제는 ‘투혼’과 ‘투지’만 강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현장의 ‘희생’과 ‘헝그리 정신’만으로는 세계와 겨룰 수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궁만 같아라!”는 말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한국 스포츠의 현실인지 모른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Rio2016 (21일 22시 현재 : 한국시간)

국가별 메달 순위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미국	43	37	36	116
2	영국	27	22	17	66
3	중국	26	18	26	70
4	러시아	17	17	19	53
5	독일	17	10	14	41
8	대한민국	9	3	9	21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오혜리(뒤)가 20일(한국시간) 카리오카 체육관 3관에서 벌어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 결승에서 프랑스의 하비 니아레를 꺾고 금메달을 확정한 뒤 박계희 코치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뉴시스

‘사이다 같았던’ 오혜리의 금빛 내려찍기

‘2인자’ ‘국내용’ 꼬리표 한방에 날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태권도대표팀의 2번째 금메달은 오혜리(28·춘천시청)의 차지였다. ‘2인자’, ‘국내용’ 등 수많은 꼬리표를 한방에 제거한 금메달이었다.

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은 한국의 메달밭이었다. 2000시드니올림픽에서 이선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황경선(고양시청)이 2004아테네올림픽 동메달, 2008베이징올림픽·2012런던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종목이다. 이는 올림픽을 처음 경험하는 오혜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 여자 67kg급에는 세계랭킹 1위 하비 니아레(프랑스)를 비롯해 쟁자자(대만), 누르 타타르(터키) 등 강자들이 즐비한 까닭에 더욱 그랬다.

오혜리는 또 대표팀 동료들과 견줘 덜 알려진 선수였다. 남자 68kg급 이대훈(2012년 은메달), 80kg 이상급 차동민(2008년 금메달)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였다. 여자 49kg급 김소희, 남자 58kg급 김태훈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오혜리는 2011경주·2015첼랴빈스크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냈지만, 팬들의 관심이 높은 대회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전자 헤드기어는 내려찍기가 주특기인 그녀에게 매우 이상적 시스템이었다. 발이 스치기만 해도 득점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오혜리는 20일(한국시간) 카리오카 체육관 3관에서 벌어진 여자 67kg급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머리공격을 7차례(21득점)나 성공하며 상대를 압도했다. “태권도가 재미없다”는 혹평도 뒤집었다.

특유의 낙천적 성격도 한몫했다. 부상 등 과거의 실패를 ‘내 탓’으로 돌렸다. 이번 올림픽 출전을 확정한 뒤에는 “후회 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약속을 실천으로 옮겼다. 매트 위에서 거침없는 발차기로 환호를 이끌어냈다. 특히 니아레와의 결승전에선 이번 올림픽에 새로 도입된 ‘몸통 돌려차기’로 3점을 따냈다. 이는 ‘준비된 금메달리스트’임을 보여준 단면이었다. 오혜리를 따라다니던 꼬리표는 올림픽 챔피언으로 거듭나기 위한 ‘알을 깨는 아픔’ 중 하나에 불과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오혜리
▲생년월일=1988년 4월 30일 ▲키·몸무게=180cm·67kg ▲출신교=강원체고~한국체대 ▲소속=춘천시청 ▲세계랭킹=6위 ▲수상 내역=2011경주세계선수권 은메달, 2015첼랴빈스크세계선수권 금메달,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금메달

태권 5남매 전원 메달 ‘유종의 미’

남자 80kg 이상급 차동민까지 동메달
종주국 부담 극복…‘태권도 재미’ 과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한 태권도대표팀이 유종의 미를 거뒀다.

21일(한국시간) 카리오카 체육관 3관에서 벌어진 태권도 남자 80kg 이상급에서 차동민(30·한국가스공사·사진)이 동메달을 따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로써 한국태권도는 여자 49kg급 김소희(22·한국가스공사), 여자 67kg급 오혜리(28·춘천시청)가 금메달, 남자 58kg급 김태훈(22·동아대), 남자 68kg급 이대훈(24·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차동민이 동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5개 체급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했다.

5명 모두 메달을 따낸 것 자체로 대단한 수확이다. 이번 올림픽에선 어느 하나 만만한 체급이 없었다. 짧은 시간에도 득점이 가능한 태권도 종목의 특성도 한몫했다. 또 전자 헤드기어, 팔각경기장 등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적응 과제도 산더미였다. 특히 한국선수들에게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2000시드니올림픽 남자 80kg 이상급 금메달리스트인 김경훈 스포츠동아 태권도해설위원은 “한국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과 싸워야 한다”며 “올림픽에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뛴 기억이 난다”고 돌아봤다. “태권도가 재미없다”는 혹평과도 싸워야 했다. 김소희는 금메달을 따낸 뒤 “도망가는 경기를 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기도 했다. 실제 김소희는 다양한 기술과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적 경기를 펼치는 선수다. 그러나 이기기 위한 수비 위주의 전략이 ‘재미없는 태권도’로 변질된 것이 문제였다.

전자호구 시스템과 채점방식 등의 변화에도 한국태권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4년 전 런던올림픽의 부진(금1·은1)을 메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절대강자가 없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냈다는 것도 의미가 컸다. 김경훈 위원은 “전체적으로 기량이 평준화돼 쉽지 않은 무대였는데,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해냈다. 선수들이 금메달에 연연하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도 좋았다”며 “전자호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줄었지만, 채점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판정시비도 그만큼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나눔Lotto6/45 716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6년 8월20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6	13	16	29	30	21

1등 총 당첨금 16억 3,052,588원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등위 및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12	1,358,752,157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35	77,642,981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1,743	1,559,09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88,628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469,730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 www.ngcc.go.kr